호남고속철 몰아치기 공사 부실 우려

정부, 2014년 완공연도 예산 집중 투입
김동철 의원 "내년 예산 획기적 증액해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완공 당해연도인 2014년에 예산을 막판 몰아치기로 투입할 예정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예결위원회 '2013년 예산안 종합질의'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와 달리 완공시기가 다가올수록 예산투입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몰아치기식 공사를 하게 되면 날림공사가 되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의 총 예산 8조7283억원 중 올해 1조7300억원(19.8%), 2012년 1조7400억원(19.9%), 마지막 해인 2014년엔 2조2756억원(26.1%)이 투입된다. 예산 중 차량구입비 5937억원을 제외해도 완공시점인 2014년에 약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경부고속철의 경우 1단계는 완공 2년 전 14.1%, 1년 전 9.0%, 완공 당해 3.3%를, 2단계도 2년 전 19.8%, 1년 전 23.3%, 완공 당해 10.8%를 각각 투입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투입이 더디게 진행되며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의 공정률도 완공 2년 전인 올 현재 56.1%에 불과한 상태다. 경부고속철의 완공 2년 전 공정률 1단계 92.0%, 2단계 60.9%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호남고속철 공사가 막판에 집중된 것은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요구했던 호남고속철 건설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011년 7997억원, 2012년 1조2020억원, 2013년 1조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2011년 5500억원, 2012년 7800억원, 2013년 950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호남고속철 같은 국가기간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도 호남고속철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 중반 및 종반기에 예산투입을 집중하고 마지막 해에는 시운전 등 안전 점검에 치중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남은 2년 동안 44%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며 "국토부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급하게 몰아치기식 공사를 할 경우 날림공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급공사 입찰 법정 다툼·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
지자체 3곳 부당 민원처리 감사원 적발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 특정한 명칭의 공사 실적만을 인정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전남지역 지자체의 부당 민원업무 처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해 11월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 건축물 대장상 전망대 등으로 등재된 실적만 인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서울 잠실대교, 동작대교 등 5개 교량에서 전망대 설치 공사를 하고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문화집회 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A업체가 광주지방법원에 계약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 건물은 무기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또 담양군은 계획관리지역인 대덕면 일대에는 건립될 수 없는 수성점액접착제 제조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밖에 광양시도 공유수면매립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과실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LED조명제품 러시아 진출 본격화

강시장, 러 국영기업과 공동협력 양해각서

광주 LED조명제품의 러시아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활동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중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러시아 에너지부 산하 국영기업인 FESCO(Federal Energy Service Company)를 방문, '에너지 및 LED분야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FESCO가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LED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LED 제품 합작생산 등 'LED조명 러시아 진출 프로젝트'가 추진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면광원을 비롯한 실내조명뿐만 아니라 LED 가로등·보안등·주차장 조명 등 실외조명 부문에서도 거대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30일에는 한·러 합작 LED 조립공장인 '이노라이트'사를 방문, 광주LED 제품이 조립·완성되는 현장을 둘러보고 러시아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했다.

'이노라이트'사는 네오마루, 세오 등 지역업체 4개사가 지난해 러시아 기업과 합작으로 모스크바 근교 젤레노그라드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내에 건립한 현지 조립공장으로, 총 6000만달러 규모의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 전량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개의 아쿠아리움 보유 여수 해양수산과학관은 양보하라?

전남도, 서부권 이전 방침
이전 비용·주민반발 논란

여수세계박람회를 치르면서 아쿠아리움을 2개나 보유하게 된 여수지역이 때아닌 수족관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가 박람회 이전 건립된 전남도립해양수산과학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지만 이전 비용만 700억원에 달하고, 이전에 따른 지역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해양수산과학관을 전남 서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전남도립 해양수산과학관 전경.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대형 아쿠아리움이 여수에 들어선 만큼 이 과학관을 전남 서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전 비용만 700억원에 달하고 지역 반발도 커 고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예산 96억원을 들여 지난 1998년 개관한 해양수산과학관은 33개의 대형수조(3179㎡)에 100여종의 어류 5000마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10마리의 바다거북과 갯벌생태수조 등을 갖추고, 관람료(최대 3000원) 저렴해 관람객들에게 인기다.

또 아이들이 물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수족관(600㎡) 등을 운영해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60만명이 다녀가 2억7000만원의 입장 수입을 얻었다. 또 올해 문을 연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줄 것으로 우려됐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10% 증가했고, 수입도 8% 늘었다.

문제는 올해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문을 열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수산과학관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연구 용역 결과 수산과학관을 전남 서부 지역으로 옮기고, 현 해양수산과학관 건물은 수산 특화연구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수산과학관 이전 비용은 500억원, 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비용 200억원 등 이전에 따른 예산은 700억원이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수지역의 이전 반대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먼바다 어류와 해외 어류를 선보이고, 해양수산과학관은 국내 연근해 물고기의 생태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면서 "무작정 옮기기보다는 이들 수족관의 특성을 살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전남 서부권에 수족관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 가족봉안묘 130기 분양

13~14일 이틀간

광주시는 "영락공원에 6기용 가족봉안묘 130기를 조성해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면 되고, 안장 대상은 민법상 가족이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최초 안장일로부터 75년으로 공급가액은 549만8000원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은 광주시에 반환되며, 유족은 화장한 유골을 1년 내에 찾아가야 한다.

광주시는 가족봉안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보고 2020년까지 매년 130기를 분양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영락공원사업소(572-4384~6)로 하면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정부, 中에 NLL 인근 불법조업 단속강화 촉구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중국에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의 어구 훼손 등이 심각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달라"고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측에 "NLL 인근에서의 불법조업 행위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강력한 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외 유명 요리사에 전남 천일염 알리기

전남도가 국내외 유명 요리사를 대상으로 지역 천일염을 알리기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구삼열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고메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식재단이 후원하는 '서울고메 2012'에서 전남 천일염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외국 유명 요리사(셰프)들을 초청해 한식 조리법과 식자재를 소개하고 이를 응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한다. 도는 가공 토판염, 태평염전 함초소금, CJ제일제당과 대상주식회사 가공 천일염, 청수식품 생활죽염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권장업종
1층 농협, 카페베네, 편의점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휴먼시아 호반베르디움 첨단2지구 토담빌딩 복광주IC 주차장 주차장 롯데마트 예정지역 상무지구 첨단산업단지 입주 예정
시공 | 대호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016-885-0881

NAVER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0월 오픈
TODAM huros H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하남공단 4번도로 ↑ TODAM huros 청우빌딩 2층
← 운남지구 첨단지구 →
신한은행 신창지구 ↓ KB 국민은행